

# 장성 'K-푸드' 미국 진출 본격화...330만달러 수출 협약

### 김한중 군수·식품기업 대표 등 방문단 현지 판촉활동 매실김치·냉동김밥·쌀과자·잡채 등 잇단 수출 성사

장성군이 'K-푸드' 미국 진출을 본격화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달 24-31일 이뤄진 김한중 군수의 미국 현지 판촉에 힘입어 '장성 K-푸드' 수출협약 330만달러(50여억원)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수출길에 오른 장성산 K-푸드는 냉동김밥, 쌀과자, 매실김치 등 다양하다. 당시 미국 순방길에는 김 군수를 단장으로 지역 식품기업인 현대푸드시스템 윤미숙 대표, 올바름 김정광 대표, 새벽팍 김치 김의병 대표 등이 동행했다. 방문단은 북미 최대 규모의 한인 식품 유통체인

'H-마트' 전남 농특산식품 판촉 행사 참여 등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장성의 건강한 먹거리를 알렸다. 이 같은 판촉 행사는 '계약 체결' 성과로 나타났다. 새벽팍은 '하이리 마케팅' 본사와 30만달러 수출 계약을 맺었고, 한남체인 플라톤점은 장성군과 300만달러 규모의 농특산식품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은 미국 방문 이후에도 이어졌다. 올바름 쌀과자는 로스앤젤레스 유통점과 약 1000만원 가량 수출이 성사됐고, 현대푸드시스템은 4000만원 상당의 냉동김밥과 잡채를 뉴욕에 수출하기로 했다.

2013년 창립한 현대푸드시스템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냉동식품 수출 역량을 갖춘 즉석식품 제조업체다. 전국 1만여개 매장에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 햄버거 등을 공급하고 있다. 수출길에 오른 냉동김밥은 '슈퍼푸드'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남산 김과 장성쌀로 만들어 의미가 크다. 유아용 쌀과자를 생산하는 기업 올바름은 '독도 쌀과자'로 유명하다. 최근 일본 수출 바이어로부터 독도 문구를 없애는 조건으로 연매출 15%에 달하는 계약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한 일화가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성장 장성'의 안심 먹거리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맛의 고장 전남도와 손잡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김한중(가운데) 장성군수와 지역 김치생산업체 새벽팍 대표가 미국 LA 현지에서 하이리 마케팅 본사와 30만 달러 수출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 나주시 상수도 유수율 '최고' ...4년 연속 전남 1위

2023년 기준 85.3% 기록

지난해에만 19억원 예산 절감

나주시가 탁월한 먹는물 관리를 통해 4년 연속 전남도 내 '상수도 유수율' 1위를 기록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상수도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수요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실제 도달한 비율을 뜻한다. 유수율이 높다는 것은 이송 과정에서 누수 등으로 사라지는 수돗물이 적다는 의미다. 그만큼 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나주지역 수돗물 사용량은 하루 4만1000t 규모로 연간 1400만t을 공급한다. 2023년 연말 기준 나주시 상수도 유수율은 85.3%에 달했다. 100t의 수돗물을 생산했을 때 약 85%가 가정으로 온전히 공급된 셈이다. 무엇보다 유수율 향상을 통해 지난해에만 약 19억원의 수돗물 구입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 2008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추진해온 지방상수도 공동 운영 성과에 기반한다. 나주시는 공사와 촘촘한 누수 진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관망 블록



나주시 누수 상수도관 복구 모습.

화'에 힘을 쏟아왔다. 또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로 통해 안정적인 물 공급을 뒷받침했다. 여기에 지난 2022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2025년부터 추진하는 '상수도 노후 관망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

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누수탐사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의 삶과 일상에 필수 요소인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나주시, 여성친화기업 2곳 인증 협약

3년간 기업 홍보 등 혜택

나주시가 성평등에 기반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온 기업에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지역 기업인 ㈜쿠로엔시스와 (주)정석푸드나주를 여성친화기업으로 새롭게 인증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성친화기업은 최고경영층 리더십, 고용 평등, 직원 근속 현황, 일-생활 균형지원 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운영 및 교육 여부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한다.

해당 기업은 나주시와 협약에 따라 채용, 승진, 임금 등에서의 여성 근로자 차별 해소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시는 3년간 환경개선사업비를 비롯해 인증현판,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한 취업 지원, 기업 이미지 제고 홍보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의 양성평등 추구와 여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안정적인 고용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다산청렴연수원 180억 투입 64실 더 짓는다

강진군, 2026년까지 생활관 확충

강진군은 다산청렴연수원 생활관 확충 사업비로 180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활관 증축 사업은 현 연수원 부지에 2026년까지 64실 규모의 생활관을 추가로 건립한다. 이로써 기존 2인실 40실에서 총 104실 모두를 1인실로 확대 운영이 가능해지며, 교육생 수용 능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산청렴연수원은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의식, 애민정신 함양을 위해 총 4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해 올 10월 말 기준 5만4557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관 증축을 통해 청렴 교육 수요에 발맞추어 교육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고, 공직자 청렴 교육 1년지 강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이번 겨울 함평으로... '겨울빛축제' 티맵 홍보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겨울추억 선사



2024 함평 겨울빛축제 포스터.

함평군은 '2024 함평 겨울빛축제'를 보다 많은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해 국내 대표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T-MAP)으로 축제 홍보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티맵 내비게이션 사용자 중 전남권과 수도권 지역을 도착지로 설정한 차량에 노출된다. 광고 멘트는 "티맵에서 함평군 겨울밤 빛축제를 알려드립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따뜻한 겨울을 만나보세요. 이번 겨울은 함께 함평으로 출발해볼까요?"로 구성될 예정이다. 홍보 기간은 14일부터 12월13일까지로, 티맵 사용자들에게 겨울빛축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 함평 겨울빛축제는 함평엑스포공원에서 26일부터 12월25일까지 열리며, 겨울밤을 따뜻하게 밝힐 다채로운 빛 조형물과 함께 함평을 찾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겨울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상희 함평군수는 "함평 겨울빛축제를 접경성이 높은 내비게이션 광고를 기획했다"며 "이번 겨울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겨울밤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함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 죽녹원 내 추성창의기념관에서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이 열리고 있다. <담양군 제공>

## 담양 죽녹원에서 다문화부부 2쌍 전통혼례식

300여명 참석 어울림 한마당 행사

담양군이 다문화부부 2쌍의 합동 전통혼례식을 올리면서 다문화가정의 지역 내 안착을 강조했다. 담양군은 최근 죽녹원 내 추성창의기념관에서 합동 혼례식과 온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도 두루마기에 정자관을 직접 차려입고 전통 혼례를 축하했다. 전통 혼례는 전 담양향교 전교를 지낸 김웅조 성균관 부관장의 집례로 거행됐다. 담양외우농악보존회의 앞놀이마당, 소리꾼 이화련의 공연으로 볼거리를 더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전통혼례에 따라 신랑과 신부가 성혼행진을 하고 하객들이 팔과 쌀을 한 줍씩 이들에 던지면서 액운을 떨치고 성혼을 기원했다. 부부의 새 출발을 응원하며 TV 등 다양한 가전과 생활용품의 후원물품도 전달됐다. 전통 혼례에 이어 담양군가족센터 주최로 온가족 소통 OX 퀴즈, 명랑운동회, 경품추첨 등 온가족이 함께하는 온가족 어울림 한마당을 진행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다문화가족과 이주민이 담양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진 바다낚시 사업 지역경제 '훈풍' ..."32억 경제유발 효과"

피싱 마스터스 대회 낚시객 늘어

강진군이 올해 바다낚시 사업으로 30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는 민선 8기 60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바다낚시 어선 유지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기존 1차산업 중심의 어촌 경제를 해양 레저관광 중심 등 3차산업으로 전환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다는 전략이다. 대회 전후로 강진군 낚시객은 1.5배 가량 늘어났으며 10월 말까지 약 1만4000여 명이 방문했다. 약 17억 2100만원에 달하는 경제유발효과를 냈다.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도 출범 이래로 올해 6

월부터 11월 대회까지 참가자·가족·지인을 포함해 약 2500명 이상 마량면을 방문, 강진군 전체에 15억 원 이상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나타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성과는 강진의 지역 기업인 SDN의 적극적인 후원 덕분에 가능했다. SDN은 2억원을 후원하며 '강진 피싱 마스터스' 출범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과 낚시관광업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SDN은 앞으로도 강진군과 협력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낚시 관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낚시의 대중적 스포츠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혼다컵 감성돔 마스터스 챔피언십과 APIS컵

두족류 선상낚시대회 파이널 라운드에서 우승자가 가려졌다. 초대 감성돔 마스터는 총량 약 3kg을 낚은 장흥군에 사는 김삼봉(63)씨가 3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초대 두족류 우승자는 여수시에 사는 이재현(50)씨가 이틀간 약 8kg을 초과해 1500만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2등과는 약 1.5kg 이상 차이를 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가족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며 "대회 참여와 함께 아름다운 미항 마량항과 함께 강진의 다양한 관광자들을 두루 둘러보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